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deling Metadata and Developing Standard Elements to Establish Oral History Archives

이정연(Jungyeoun Lee)*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사를 대치하는 구술사에 관하여 기록물로서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구술사 기록물을 구조화 할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 모형과 설계 요소를 개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술사 기록의 내용과 형태를 정보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 기술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디지털 구술 아카이빙 구축을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 레코드 그리고 관련 레코드 영역으로 메타데이터 모델링을 설계 하였다. 또한 기본 요소와 세부 요소, 구분 요소의 설계 원칙에 의하여 실제 구술사 기록물을 대상으로 구현을 통해 적용 해 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develop standard metadata model and develop elements and present the importance of oral history archives that contrast with literature history. The study analyzed standard metadata description elements that can express contents and forms of oral history archives as information. Furthermore, it designed Project, Management, Record, and metadata modeling as a Related record domain for the sake of building digital oral archives. Finally, the study gave shape to real oral history archives based on basic elements, details, and design principles of division elements.

키워드: 구술사, 구술사 기록물, 구술 증언, 구술기록, 구술 채록, 구술 아카이브, 구술 자료, 메타데이터 모델링
oral history, oral testimony, narrator, oral archives, oral sources, metadata modeling

*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jyonlee@gmail.com)

■ 논문접수일자 : 2009년 2월 15일 ■ 최초심사일자 : 2009년 2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 2009년 2월 27일
■ 정보관리학회지, 26(1): 163-184, 2009. [DOI:10.3743/KOSIM.2009.26.1.16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류의 역사는 문자가 출현하기 수천 년 전에 시작되어 문자시대 이전에는 민요나 무용 등의 무형의 그림을 남기기도 하였고, 기억을 위해서는 서사시나 노래말의 형태인 구술로 전승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문자, 종이, 인쇄술의 발전으로 실증사학이 주를 이루면서 구술사는 문헌사로 대치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대부분은 문자 중심의 문헌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문헌사료가 소수의 지배자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역사의 주체가 공식기록을 남길 수 없는 영역까지 대변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구술사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매체의 기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최근 들어 학자 및 기관 들은 구술기록에 관심을 갖게 되어 구술기록물을 생산 및 수집,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구술사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술 채록 수집을 시작하고 있는데 도서관이나 아카이빙 센터 중심의 구술기록 수집과 구축 보다는 역사학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구술기록물을 생산 및 수집,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용자가 정보원으로서 구술사 아카이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구술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생산주체, 생산매체, 생산과정 및 보존과 이용, 저작권 범위, 보존 등 고려할 요소가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술기록물의 특

성에 맞는 디지털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빙과 상호운용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표준화 된 메타데이터 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구술사 기록물의 구성 요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구술사 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술기록의 내용과 형태를 정보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 연구와 구술사 기록물을 구조화 할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정 도메인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체계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정보모델이 필요하다. 정보모델은 커뮤니티에 내재한 정보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여 적합한 메타데이터 요소의 추출과 활용에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구술기록물 도메인의 특성과 요구 사항 분석을 통하여 정보모델을 설정하고 응용프로파일을 중심으로 한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념 모델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술사 기록물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구성 요소 개발과 구조적인 메타데이터 모델링을 통한 표준화 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구술사 기록물의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구술기록을 표현할 수 있는 구술기록 특성 요소를 추출하였다. 둘째, 구술사 기록물을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준메타데이터인 Dublin Core, ISAD(G), PBCore를 중심으로 구술사 기록의 기술영역과 기술요소를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한 내용

을 기반으로 디지털 구술아카이빙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과 설계 원칙 및 설계 요소를 추출하였다. 넷째, 설계 된 모형과 설계 요소 원칙에 따라 실제 생성 된 프로젝트 기반의 구술사 기록물을 대상으로 적용 하여 이를 구현해 보았다.

1.3 선행연구

Richie(1993)에 따르면 삼천년 전 중국의 주나라에서는 궁중 역사가들이 백성의 속담을 수집했고, 투키디데스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또한 볼테르도 프랑스 왕들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늙은 조신들, 하인들, 대군주 등에게 물어보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문헌중심의 역사쓰기가 주를 이루던 지난 세기 동안 역사학계에서 구술사는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였다. 1934년 네빈스(Allan Nevins)가 '구술사'(oral history)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1948년에는 컬럼비아 대학에 구술사연구소를 세우고 최초로 조직화된 구술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구술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시작되었다. IFLA(2000)는 구전(oral tradition)에 대한 수집과 보존을 주제로 방콕에서 1999년 IFLA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각국의 도서관에서 구전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야기의 원조 구술, 음악, 희귀 전통, 개인적 역사 등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시작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언어교육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며 수집한 음성녹음자료로 음성도서관을 설립하였으며, 아프리카 말리는 조직화된 구전 교육구조 안에서 대를 물

려서 구전을 교육 하는 구비전승자인 "griots"가 현존하고 있어, 이들의 구술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작업을 급선무로 여기고 있다. Kargbo(2008)는 대학도서관에서의 구술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정보기술이 도서관에 유입됨에 따라 사서와 도서관은 구술기록의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여 도서관에서의 서비스가 용이하게 됨을 강조하면서 사서는 구술기록물에 대한 선정과 장서개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사서는 독립적으로나 중간 역할로서 다른 기관과의 구술기록물에 대한 생성, 보존 등에 대한 문화 전승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Songhui(2008)는 중국의 구술기록물이 서구에 비하여 열악함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학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난징 대학살' 당시 생존자를 중심으로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를 수행 하였는데, 구술사 기록에 대한 연구방법이나 관심이 적었고 도서관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구술기록물과 도서관의 비평적 관점에 대하여 논하기 시작하였고 장서로서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사서가 구술기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도서관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술 자료를 이용한 사례는 1980년대 목수, 보부상, 옹기장이, 농부 등 다양한 민중들의 삶을 채록 하여 발간 한 민중자서전 시리즈를 들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구술을 사료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기억은 역사와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역사적 지식의 규명을 위해 또 다른 자료로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윤택림, 함한희 2006). 최근 들어 사건의 증언 자료로 구술 채록이 시작되었으나 체계적인 구술사 관련 기록물의 생산과 수집 그리고 아카이브 중심의 구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술기록의 관리 방법에 대하여 권미현(2004, 2007)은 ISAD(G)를 중심으로 구술사료 기술요소를 제안하였고 실제의 관리와 활용에 적용한 사례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다.

2. 구술사 기록의 특성

2.1 구술사 기록의 개념

‘구술사(oral history)’는 구술자(narrator)¹⁾와 연구자(interviewer)²⁾의 관계를 통해 구술자의 기억(memory)과 연구자의 질의(inquiry)를 중심으로 상호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조적인 내용(context)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Fogerty 2006). Ritchie(2003)에 의하면 구술사는 기록된 인터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구술된 기억과 개인적 논평들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Starr(1996)는 ‘구술사’를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술을 기록함으로써 생기는 일차적 자료라고 정의를 내렸고, 반면 톱슨(2000)은

구술사가 피지배층의 구술 자료를 통해서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쓰는 작업이라고 정의한다. 한국구술사연구회(2005)는 넓은 의미의 구술사는 과거의 기억을 말로 회상한 것을 연구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는 역사연구이고 좁은 의미의 구술사는 구술 사료를 이용한 역사연구이라고 하였다. 윤택림과 함한희(2006)는 구술사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서 현재로 불러와서 구술자와 역사가가 대화를 통해 쓴 역사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구술사’, ‘구술자료’, ‘구술사료’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구술사’가 구술자가 발화하는 행위나 내용인 ‘구술’을 기록이라는 의미보다는 ‘구술’ 자체를 역사로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³⁾ 다시 말하면, 구술사 기록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보다는 구술 채록에 더 비중이 큰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술사를 구술자와 연구자가 구술을 통해 구술기록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구술기록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역사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술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구술 행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구술기록만을 제한하고자 하며 이를 ‘구술사 기록물’이라고 하고자 한다.

2.2 구술사 기록물의 특징

구술사 기록은 대체로 구전(oral tradition),

1) 구술자(narrator)를 피면접자(interviewee), 제보자(informant), 구술저자(oral author)의 의미를 대표하는 용어로 선정하였다.
 2) 연구자(interviewer)는 면접자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로 명명한다.
 3) 질적 연구 방법론에는 현지조사(field work), 문화기술지(ethnography), 민속학,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 구술사, 현상학,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 초점집단연구(focus group interview)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 중에서 구술사는 역사를 총칭함과 동시에 연구방법론의 하나를 의미하기도 한다.

구술증언(oral testimony),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구전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구술로 전승되어 남겨진 기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같이 문자가 없어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강한 구전이 남아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구술증언은 구전과 같이 여러 세대를 거치지 않고 한 개인이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이다. 구술증언은 직접 경험을 구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의 입장에서 구술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직접 구술증언과 간접 구술증언을 구별해야 한다. 셋째, 한 개인이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구술생애사가 있다. 이 경우의 구술은 연구자의 질의나 구술자와 연구자의 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판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구술자와 연구자와의 라포형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윤택립, 함한희 2006). 이러한 구술기록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술의 가장 큰 특징은 문어가 아니라 구어로 이루어지는 구술성이다. 구어는 구술자 개인의 언어행위 특성을 반영하는데 언어적 행위는 구술자의 계층적 차이, 성별, 직업, 기대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다. 또한 구술은 매우 상황적이고 연행적 성격이기 때문에 구술이 누구와 언제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되고 있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구술기록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회상을 통해 현재로 불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역사적인 자료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구술 자료의 가치는 그 주관

성으로부터 온다고 보는데, 다른 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운 개인의 사적, 주관적 경험을 드러나게 하여 개인과 사회의 객관적 구조와 상호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연구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산되는 상호성이다. 구술자와 연구자 사이의 대화라는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텍스트의 생산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구술기록은 구술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수행되느냐에 따라 그 판본이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구술은 단순히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가 구술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해석해 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구술자는 단순히 연구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술기록과 구술사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구술자가 동시에 저자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연구자와 구술자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술기록을 생산해 내는 데에 연구자와 구술자의 목소리를 구분하여 생산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목적성이다. 구술기록은 일반적으로 주관 기관에서 프로젝트 목적을 가지고 생산된다. 연구자는 중립적이어야 하며, 오히려 글을 쓰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또한 구술기록은 과거를 보존하고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재창조하면서 현재의 레코드로 만드는 과정이므로 창조하는 작업을 거친다(Ritchie 1993). 특히 도서관이 주관기관이 되는 경우, 사서들이나 아키비스트들의 구술기록에 대한 프로젝트 기획과 구술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 뿐 아니라 기록물 생산 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매체의존성이다. 구술기록물은 기록 저장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휘발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구술기록 형태인 음성기록, 동영상기록의 형태로 기록하는데 매체 보존 상태에 따라 영속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성기록물을 문자기록물로 매체를 변환한다. 따라서 초기에 기록하였던 구술기록의 내용은 같지만 다양한 형태의 매체로 변환되면서 보존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전자 녹취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술의 원 기록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특정부분을 발췌하여 구술자의 음성과 녹취를 바탕으로 자료집이나 관련 책자를 생산하기도 한다.

2.3 구술사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구술사 기록물은 직접적으로 구술기록물을 생산 하는 경우와 기존의 생산된 구술 자료를 관련기관이 수집하는 경우 또는 개인이 구술기록물을 생산과 수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생산되는 형태인 기관 중심의 구술자료 생성 및 보존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관의 구술사 기록물 생산(수집) 계획은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는데 첫째, 수집 기획 시에 수집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하고 그 목적과 범위를 정하게 된다. 둘째, 기관 자체 내의 연구인력으로 구술기록물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외부 공모를 통하여 연구자와 구술자를 선정하게 된다. 셋째, 여러 명이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므로 규범화 된 구술사 프로젝트의 윤리 규정이나 구술 채록 방법 그리고 관련

서식들을 활용하여 표준화 한다. 넷째, 구술기록물 생산(수집) 단계 이다. 흔히 개별 구술자와 연구자간의 대화를 기록하는 본격적인 단계이다. 좋은 연구를 위해서는 구술자가 편안하게 구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구술자 간의 사전 면접을 통해 라포 형성을 돕고 구술자와 관련된 문헌이나 기존 자료 들을 통해 질문지를 만드는 과정인 사전조사 단계와 실제조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면접 후에 행해지는 녹취문 작성 과정과 보충 조사 단계가 있다. 다섯째, 구술기록물 정리 단계이다. 구술 기록은 구술 당시의 환경과 연구자와 구술자 간의 관계에 따라 구술의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술 당시의 배경과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자의 느낌을 기술하는 면접 후기문을 작성한다. 여섯째, 프로젝트 결과의 보고와 평가 절차이다. 연구자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구술채록에 대한 분석적 해석과 구술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일곱째, 마지막 단계인 보존과 이용의 단계이다. 연구 프로젝트가 끝난 연구자는 구술기록물 뿐 아니라 관련 서류(예를 들어 공개 동의서 등)를 제출하고 프로젝트 주관기관에서는 이를 표준화 된 형태로 구축하여 향후 보존과 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 한다.

3.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빙을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분석

구술사 기록물을 데이터 자원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위 구술사 기록물을 저장

으로 구분하고 내용과 범위를 기술하며, 관계되는 기록물들의 연관관계를 표시하고 중요한 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원을 기술하고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개발되고 있다(Intner et al. 2006).

첫째, 관리 메타데이터(administrative metadata)로서 정보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이며, 수서 정보, 트래킹의 권리와 복제, 법적 접근 권한의 문서화, 위치정보, 디지털라이징 선정 기준, 버전 관리 등이다. 둘째, 설명 메타데이터(descriptive metadata) 정보자원을 구별하고 설명하기 위한 용도이며, 목록, 검색 보조, 주제색인, 관련 자원과의 연계, 이용자에 의한 주석 등이다. 셋째 보존 메타데이터(preservation metadata)인데 정보 자원의 보존 관리와 관련된 메타데이터이다. 자원의 물리적 조건의 문서, 정보 자원의 디지털 보존과 물리적 보존 행위와 관련된 문서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정보 등이다. 넷째, 기술 메타데이터(technical metadata)로서 정보자원 이용에 필요한 기술요건에 관한 메타데이터와 시스템 기능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 디지털화 정보인 형식, 압축률, 응답시간 트래킹과 보안데이터와 인증과 관련된 사항이다. 다섯째, 이용 메타데이터(use metadata)이다. 정보자원의 이용의 종류와 수준과 관련된 메타데이터이다. 이용과 이용트래킹, 전서 기록, 내용의 재이용 등에 관한 정보이다.

본 연구는 구술기록에 관련된 내용과 자원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관리, 설명, 보존, 기술, 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술 기록물을 표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분석 메타데이터 선정

구술사 기록물은 구술성을 표현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외형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구술성의 역사적 내용을 기술 할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 규칙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술사 기록물 메타데이터를 제시하기 위한 분석대상 메타데이터는 역사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기록물 메타데이터 표준인 ISAD(G), 웹 상에서 기술할 수 있는 가장 범용적인 표준 메타데이터인 DublinCore(더블린코어), 그리고 구술기록물의 특징인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표현 할 수 있는 PBCore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Clair(2008)는 동영상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적용 규칙을 개발하기 위하여 더블린코어와 PBCore에서 필수 요소를 추출하여 총 25개 필드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험 구현하였다. 한편 MPEG-7과 MARC을 매핑 분석 한 중심 48개의 레지스트리를 설계하여 동영상 컬렉션을 구현하기도 하였다(Agnew 2007). 그러나 MPEG-7은 PBCore에 비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자료의 기술, 관리, 접근에 관련하며 특히 구조와 의미 정보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MPEG-7 대신에 PBCore에서 제시하는 요소로 디지털 자료의 물리적인 표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PBCore를 분석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3.1.1 ISAD(G)2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국제기록물기술표준)로

1994년 ICA(International Congress on Archives)에서 제정 하였고 2000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인 기술요소 26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세수준의 메타데이터 기술요소는 표현하기 불충분하며, 디지털 자료의 요구조건을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박진희 2005). 하지만 ISAD(G)2는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핵심수준의 기술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SAD(G)2의 기술요소는 식별사항, 생산배경, 내용 및 조직, 접근 및 이용, 관련자료, 주기사항, 기술통제 영역으로 크게 나뉘고 각 영역별 세부 기술요소가 제시되어 있다.

3.1.2 DublinCore

더블린 코어는 표준화된 메타 데이터 요소 집합으로 동영상, 소리, 이미지, 텍스트, 웹 페이지 등의 디지털 매체들을 기술하는 데 널리 사용되며, 보통 XML과 RDF를 사용하여 구현된다. 1995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요소집합은 15개⁴⁾로 규정되어 있고 이들 요소는 자원의 본질적인 특성을 기술요소로 하고, 규정된 데이터 요소 외의 부차적 특성을 확장할 수 있으며, 표현기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각 요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기술요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정어를 사용하여 의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째, 자원의 내용과 관련된 콘텐츠 기술요소로서 제목, 주제, 설명, 출처, 언어, 관련자료, 자료의 범위이며, 둘째, 지적재

산권과 관련된 지적인 속성요소로서 제작자, 기타제작자, 발행자, 저작권, 셋째, 물리적인 기술요소로서 날짜, 형식, 유형, 식별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한정어를 마련하여 요소를 세분화, 상세화 시켜 검색의 효율성을 향상되게 하였다. 요소의 의미를 좁히거나 특정화 시키는 상세구분 한정어와 통제어휘집, 문장 분석 규칙 등의 요소 값을 표현해 주는 인코딩 스킴 한정어를 사용하고 있다

3.1.3 PBCore

PBCore(Public Broadcasting Metadata Dictionary Project)는 2005년 미국방송협회에서 방송국과 관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을 설계하고 2007년에 v.1.1을 발표하였다. PBCore는 DublinCore(ISO 15836)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는데 지적내용(intellectual content), 지적자산(intellectual property), 물리적 내용(instantiation), 확장요소(extension)의 네 가지 범주가 있으며, 각 범주에는 세부 요소들이 총 53개로 제시되어 있다. PBCore의 개발은 디지털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특정 세그먼트를 전송하고 프로그램을 위한 생산물의 과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생산과 배포의 모든 측면에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PBCore를 선택한 이유는 구술기록물의 형태적 특성이 음성과 영상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체에 대한 속성과 유형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4) Audience, Provenance, RightsHolder, InstructoinalMethods, AccrualMethod, AccrualPeriodicity, AccrualPolicy 등은 15개 기본 요소 이외에 고려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데이터요소로 간주되고 있는데 Qualified Dublin Core를 사용할 때에만 이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2 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구술사 기록물을 표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형식을 Intner et al(2006)이 정보자원의 기술

관점과 목적에 따라 구분한 관리 메타데이터, 설명 메타데이터, 기술 메타데이터, 보존 메타데이터, 이용 메타데이터의 관점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정보자원 기술관점에 따른 메타데이터 요소 분석

영역	DublinCore	ISAD(G)	PBCore
관 리	Rights	Conditions governing access Conditions governing reproduction	rightSummary
		Immediate source of acquisition or transfer	
		Existence and location of originals Existence and location of copies	
		Rules or Conventions	
		Note	
설 명	Title	Title	title titleType
	Creator	Name of creator	creator creatorRole
	Contributor	Archivist's Note	contributor contributorRole
	Publisher	Publication Note	publisher publisherRole
	Subject		Subject SubjectAuthorityUsed
	Coverage	Scope and contents	coverage coverageType
	Description	Levels of description Extent and medium of the unit of description	description descriptionType
	Date	Date	dateCreated dateIssued
	Type		genre genreAuthorityUsed
	Language	Language/scripts of material	language
	Source		
	Relation	Related units of description	relationType relationIdentifier
	Identifier	Reference code(s)	identifier identifierSource
			extension extension authorityUsed
보 존	-	Administrative/biographical history	-
		Archival history	
		Appraisal, destruction and scheduling information	
		Accruals	

기술	Format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echnical requirements	formatPhysical formatDigital formatLocation formatMediaType formatGenerations formatStandard formatEncoding formatFilesize formatTimesStart formatDuration formatDataRate formatBitDepth formatSamplincRate formatFrameSize formatAspectRatio formatFrameRate formatColors formatTracks formatChannelConfiguration alternativeModes formatIdentifier formatIdentifierSource
이용	-	System of arrangement Finding aids	dateAvailableStart dateAvailableEnd <hr/> audienceLevel audienceRating

첫째, 설명 영역은 데이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의 식별과 주제 접근이 용이하도록 중점 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형식 인데, 앞서 분석한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는 대부분 설명 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더블링크어가 이 부분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명 영역은 구술기록물에서 단위 레코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적용 될 수 있다. 둘째, 메타데이터 형식의 공통 요소로는 제목, 저작자, 범위, 설명, 날짜, 언어, 관련 자료, 식별자, 이용 권한, 형식이다. 이 요소들은 구술기록물에서도 기본 요소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추후, 타 기록물과의 연계 및 공유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ISAD(G)의 요소는 모든 영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PBCore는 기

술 영역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PBCore는 영상물의 형태 요소를 상세히 제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요소 별로 역할어로 상세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각 요소 항목에 따라 기여하는 역할자가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해당 항목의 종류를 상세히 구분하기 위하여 역할어를 제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구술기록물에서 저작에 대한 동등한 저작자인 구술자와 연구자의 기술 뿐 아니라 촬영자, 녹음자, 녹취자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 측면이 강조되어 관리나 보존 측면은 다소 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메타데이터 표준 형식에서 제안 한 요소 중 디지털 매체의 변환 과정 문서 기술에 관련된 보존 영

역이 ISAD(G)에서 제시한 요소에서만 언급되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술기록물에서는 자원의 디지털 형태도 다양하지만 매체의 변환 기록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 기록물의 종류와 목적과 활용도에 따라 제시되는 메타데이터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술사 기록물을 표현할 수 있는 설계 원칙들과 요소들을 선정하여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빙 구축을 위한 요소를 추출하여 표준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술사 기록물에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모델링을 제시하고자 한다.

4. 구술사 기록물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과 요소 설계

구술사 기록물 메타데이터 요소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 의미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표준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와 요소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기술하는 틀인 스키마(schema)에 의해 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 견고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구성하려면 도메인의 개념과 관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구성해야 한다(이현실, 한성국 2006). 특히 구술기록물을 효과적이며 사용하기 용이하며, 보존을 위한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구술기록물의 특징을 기반으로 메타데이터 설계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메타데이터 요소로 표현함과 동시에 다른 구술기록물

과 데이터의 통합과 교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술사 기록물 도메인의 정보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여 적합한 메타데이터 요소의 추출과 활용에 지침을 제공할 개념 스키마 모델인 정보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구술사 기록물 정보 모델 설계

구술사 기록물은 문헌기록물에 비하여 주관적이고 서술적인 기술양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문헌기록물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메타 정보 뿐 아니라 구술기록물의 내용 정보의 체계화 및 메타데이터 기술에 관한 효과적인 '구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메타데이터의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더불어 구술기록물을 구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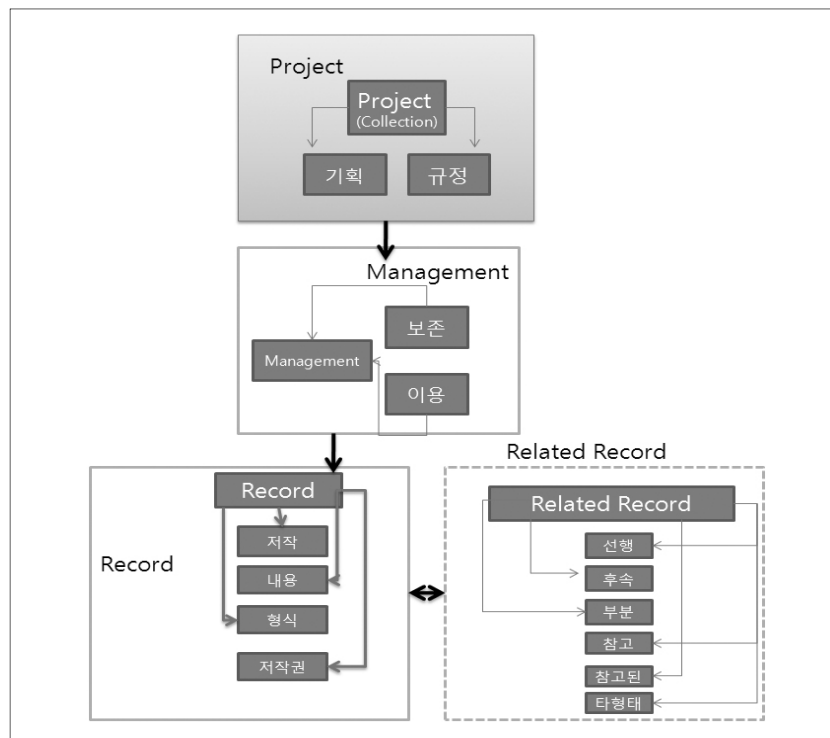
첫째, 구술사 기록물은 개인 연구자가 중심이 아니라 책임 기관의 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책임 기관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술기록물의 생산 목적과 배경 등에 요소와 목적 등의 범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향후 구술기록물이 역사적 자료로서 구술사로 해석될 때 근거 배경과 구술기록물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고 동일한 프로젝트의 여러 저작물이 집중 기술 될 수 있도록 모델링 되어야 한다. 또한 컬렉션별, 관련 자료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구술사 기록물 과정의 프로세스별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요소를 추출해야 한다. 구술기록물은 새로운 역사

를 생성하는 것이므로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 표준화 된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를 기반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타 기관과의 데이터 호환도 가능하게 설계 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술사 기록물은 후속 연구의 원자료가 되므로 원자료의 명확한 표현과 더불어 원자료 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매체와 내용의 관계와 그들의 속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기술사 기록물은 기술사를 의미하는 기록물 이므로 사료적인 관점에서 보존이 중요하다. 또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이용 범위 등의 이용 관점도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프로젝트, 관리, 레코드 그리고 관련 레코드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기록물의 개념 모델을 설계 하였다.

이 모델은 기술사 기록물의 표현체인 레코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과 동시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관련 요소를 상속하여 총괄적인 개념에서 저작을 집중 시킬 수 있도록 계층적 구조로 설계 되었다. 또한 관련 레코드의 순차적인 논리적 및 물리적 개념을 관련 레코드로 설정하여 저작 간의 관계를 내비게이션 할 수 있게 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사물의 관리 측면과 현재의 이용 측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관리와 매체 보존관리 그리고 이용조건과 이용범위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그림 1> 기술기록물 구축 정보모델링

록 하였다. <표 2>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영역
 이와 같은 구술사 기록물 정보모델링 스키마 별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에 의해 메타데이터 영역과 요소로의 표현은

<표 2> 구술사 기록물 표준 메타데이터 요소(안)

요소 영역	요 소	요소명	세부요소	구분요소	
Project	기획(Planning)	식별기호(Identifier)			
		프로젝트명(ProjectName)			
		컬렉션명(CollectionName)			
		주관기관(Organization)	주관부서(OrganizationDept)		
		프로젝트 관리 (ProjectManagement)	계획서(ProjectProposal)		
			중간보고서(MiddleReport)		
			결과보고서(FinalReport)		
	연구 참여자 (ProjectParticipation)	연구책임자(ProjectManager)	소속(Affiliation)		
		연구수행자(ProjectResearcher)			
	프로젝트 수행기간 (ProjectPeriod)				
규정(Mannual)	저작권 규정(Copyright)				
	윤리 규정(EhticsManal)				
Management	보존(Preservation)	메타데이터(Metadata)	작성자(Writer)		
			기술날짜(Date)		
			기술규칙(Description)		
		보존 관리 (PreservationManagement)	관리주기 (ManagementFrequency)		
			보수일자(RepairDate)		
			보수내역(RepairNote)		
			포맷기준(FormatStandard)		
	포맷변환 (FormatTransformation)				
	포맷변환일 (FormatTransformationDate)				
	보존위치(Location)	물리적(Physical) 가상적(Cyber)			
	이용(Use)	이용 조건(UseCondition)	이용 공개(UseOpen)		
			이용 제한(UseConstraint)		
			제공 형태(Services)	온라인(Online) 오프라인(Offline)	
Record	저작(Authority)	저작명(AuthorityName)	세부 저작명 (SubAuthorityName)		
		식별기호 (AuthrityIdentifier)			
		저작 책임자 (AuthorityManager)	구술자(Narrator)	상세이력/기타 (Resume)	
			연구자(Interviewer)	상세이력/기타	

Record	저작(Authority)	기타 저작자(Contributor)	녹취자(Transcripтор)	상세이력/기타
			촬영자(MovieRecorder)	상세이력/기타
			녹음자(Recorder)	상세이력/기타
			기타(Etc)	
		저작 형태(Type)	구술녹음(OralSoundRecording)	
			구술영상(OralImageRecording)	
			녹취문(Transcript)	
			이미지(Image)	
			문서(Document)	
			파생저작(Book)	
			연구보고서(Report)	
		종류(Classification)	구술생애사(OralLifeHistory)	
			구술증언(OralTestimony)	
			구비전승(구전)(OralTradition)	
	기술(Description)	면담차수(InterviewFrequency)		
		구술일자(InterviewDate)		
		구술장소(InterviewPlace)		
		구술언어(InterviewLanguage)		
		구술시간(InterviewTime)		
		서지사항(Bibliography)		
	내용(Contents)	주제 분류(Classification)		
		주제어(Keywords)		
		목차(TalbeOfContents)	전체목차(FullTOC)	
			단위목차(UnitTOC)	
		요약(Summary)	전체요약(FullSummary)	
			단위요약(UnitSummary)	
	배경(Background)			
	면담후기 (InterviewPrologue)			
형식(Format)	매체(Media)	매체유형(MediaType)	음성기록 (SoundRecording) 영상기록 (VideoRecording) 녹취기록 (Transcript) 이미지기록 (ImageRecording) 문서기록(Document)	
		총 재생시간 (TotalDurationTime)		
		총 매체개수 (TotalMediaAmount)		
		총 매체크기(TotalMediaSize)		
		저장매체(StorageMedia)	매체 수(Count)	
	포맷유형(Format Type)			

Record	형식(Format)	매체(Media)	판차(Version)	판차명(VersionName)
				식별번호(VersionIdentifier)
				매체크기(MediaSize)
				재생시간(Duration)
				해상도(Pixel)
				색상(Color)
	보관 장소(Location)			
	저작권(Rights)	저작권자(Copyright)	관리내용 (CopyrightContents)	공개동의서(Agreement)
				이용허락서(UsePermission)
				공개 여부(AccessControl)
제한 내역(Constraints)				
RelatedRecord	관계 유형 (RelationType)	선행자료(HasVersion)		
		후속자료(IsVersionOf)		
		부분자료(HasPart)		
		참고자료(References)		
		참고된자료(IsReferencedBy)		
		다른 형태자료(HasFormat)		
	관계식별자 (RelationIdentifier)			

4.1.1 프로젝트

구술사 기록물은 주관기관의 프로젝트 기획 하에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프로젝트의 계획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생성되는 정보가 해당 구술기록물의 배경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영역을 프로젝트(Project) 영역이라고 하여 구술사 기록물 기획과 연구 수행 단계에서 추출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획 및 관리 상황인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수행 방법, 연구 수행일 등이 포함되며, 이는 구술 프로젝트의 개괄을 표현 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종료 시 까지 적용되는 각종 규범과 양식들의 표준 형식이 포함 된다. 구술기록물을 해석하고 연구할 경우에 이러한 요소 값 들은 시대적 배경, 기관의 특성, 자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영역은 관리 영역과 연계하여 구술 기록물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지속

적인 유지 관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술 저작물을 표현 하는 레코드 영역과 연계 되어 연구자와 구술자 중심의 관련 저작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4.1.2 관리

역사적인 특성이 강한 구술기록물은 보존을 위한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구술사 기록물은 매체 중심적이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아날로그 테이프 형태로 구술녹음 하였던 자료는 자료의 물리적인 보존 형태에 따라 데이터 내용의 소멸성 여부가 결정되며, 오늘날의 디지털 보존 형태는 매체의 변환의 간기가 단축되고 있으므로 매체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변환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주기적

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한 기록과 포맷 기준 및 변환 등에 관한 내역도 요구되며, 물리적인 위치 및 가상적 보관 장소와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한 영역을 관리(Management) 영역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메타데이터 관리, 보존 관리 그리고 이용 관리를 포함한다. 특히 구술기록물의 이용에 대한 사항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데, 웹으로 구현 되는 구술 기록물에 대한 이용과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구술 기록물의 특성 상 내용을 공개 하지 않는 경우나 부분 공개 혹은 비공개 부분은 빈번하므로 이용조건의 상세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보았던 <표 1>의 메타데이터 요소 중에서 관리 영역과 보존 영역 그리고 이용영역을 참조하여 요소를 추출하였다.

4.1.3 레코드

레코드 영역은 단위 구술기록물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저작 사항과 저작권에 대한 사항이다. 이를 위하여 설명 영역과 기술 영역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레코드 영역은 또한 관련 레코드 영역으로 연계되어 관련 저작물들을 모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프로젝트 영역의 컬렉션 단위로 집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 한다. 가령 구술 녹음 자료의 경우에 대부분 녹취 자료로 문서화 되는데,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음성 자료 보다는 문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술기록물의 업무 내용상의 일반적인 순차적 개념을 도입하여 동일 프로젝

트 내의 관련 저작물을 연결시켜야 하며, 이들은 동일 저작과 컬렉션 단위로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요소들은 저작, 내용, 형식 그리고 저작권이다.

4.1.3.1 저작

구술사 기록은 연구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되는 새로운 기록물이기 때문에 연구자 뿐 아니라 구술자 및 구술기록 프로젝트 주관기관의 저작적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구술자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대안적인 역사 서술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에서는 연구 표본 대표성이 구술사에서는 이론적 자격⁵⁾으로 대치되므로, 구술자에 대한 기본 인적 정보와 배경 정보인 상세이력이 기술 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연구자 역시 역사가라기보다는 중립적 입장에서 역사 서술을 조력하는 기록 관리사로서의 역할이었지만 최근에는 적극적인 행위자(agent)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에 대한 정보 역시 중요한 구술적 맥락 해석의 요소가 된다. 그 외에 녹취자, 촬영자, 녹음자 등 역할자들에 대한 기타 저작자의 정보를 기술한다. 저작 형태로는 구술녹음, 구술영상, 녹취문, 이미지, 문서자료 등이 있으며, 구술 원자료를 통해서 파생 되어 생산되는 형태의 저작물이 있다. 예를 들어 구술 증언집이나 구술 자료집 등의 원 저작물의 요약본을 들 수 있다.

4.1.3.2 내용

구술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맥락(context), 서술형식(narrative form), 구술자

5) 이론적 자격이란 구술자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이 연구자의 주체에 타당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와 연구자의 관계(relationship) 등의 주요 분석 변수를 기술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기술 하기 위해서는 구술 당시의 배경정보와 구술기록 전, 상황 그리고 후기를 기술하는 면담후기 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구술 기록물에 대한 요약과 목차를 연구자가 기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술 내용에 대한 주제분류와 주제어 역시 필요하며, 이는 상황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기술적인 요소인 면담 차수, 언어, 날짜, 장소, 시간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

4.1.3.3 형식

구술사 기록은 대부분 음성녹음이나 영상녹음을 통해 기록되며, 아날로그형 음성녹음을 매체 변환을 통해 디지털로 변환하고 있고, 매체 변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녹음 기록을 이용할 때에는 연구자는 대부분 녹취록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다. 녹취는 구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구술 기호와 편집기호를 삽입하여 억양이나 발음상태, 몸짓과 표정 등이 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술기록이 저장 된 때의 상황과 구술자의 특징적인 어투, 습관 등은 녹취록에 그대로 표현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와 같은 작업의 표준으로 주관기관에서 녹취(전사)양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녹취하는 방법은 전사 녹취를 하거나 편집녹취를 하게 되는데 편집녹취인 경우 중심주제별로 연대기적으로 주제별로 재편집하는데 이때 구술자와 연구자가 공동 작업하여, 재검증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매체 뿐 아니라 매체 전환 시에 이형의 판차가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원본 녹

음자료에 대한 판차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식 요소에 매체 유형과 매체 형태를 표현 할 수 있는 요소와 물리적인 형태와 디지털로 변환 되는 저장 매체와 포맷 유형 및 이형의 판차 별로 세부적인 판차명, 식별기호, 매체 크기, 재생시간, 해상도 등을 기술하여 판차별 내용의 변화와 형태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4.1.3.4 저작권

구술사 기록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 등이 기록되기 때문에 구술 기록에 대한 저작권, 공개여부, 정보서비스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구술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흔히 공개동의서를 구술자로부터 받게 되는데 구술 작업 내용과 녹취자료 작성에 관한 내용과 구술기록에 대한 권리 양도, 연구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 여부 등이 포함되며, 공개시기에 대하여 구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다. 또한 공개 제한된 내역의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나 제한 이유 등을 기술 하도록 한다.

4.1.4 관련 자료

관련 자료는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원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요소이다. 특히 구술사 기록물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물의 선후 관계가 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선행 및 후속 관계 자료를 명시하고 동일한 저작의 다른 형태로 표현 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구술기록 당시에 수집된 기타 자료 들은 부분자료로 처리하여 프로젝트 수행 시의 관련 자료

들의 연관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젝트 외의 외부 관련 자료를 참고한 경우의 자료의 관계 혹은 본 레코드 정보와 향후 참고 된 파생 자료 등과의 연관관계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모아주고 관련 문헌자료나 비슷한 자료들과 비교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는 반드시 관계 식별자를 이용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구술사 기록물 정보모델링 요소 적용 및 구현

구술사 기록물의 개념 모델링을 통해 설계된 영역 별 메타데이터 요소를 기반으로 실제 구술사 프로젝트⁶⁾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메타데이터 표준 데이터요소에 적용하고 이를 웹으로 구현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구술기록물 메타데이터 표준 형식을 기반으로 XML 태그를 정의하고 해당 필드에 데이터 값의 입력 후 XSL 기술을 결합하여 HTML 형태로 표현하였다. 각 단계별 과정의 예는 <그림 2>와 같은 XML 태그 명명 단계와 <그림 3> XSL 구현 단계 그리고 <그림 4>의 결과 화면으로 구현 되었다.

```

<Record>
  <Authority>
    <Identifier></Identifier>
    <AuthorityName>000의 구술생애사</AuthorityName>
    <SubAuthorityName>000의 구술녹음</SubAuthorityName>
    <AuthorityManager>
      <Narrator><
        <Name>0|00</Name>
        <Resume></Resume>
        <Etc></Etc>
      </Narrator>
      <Interviewer>
        <Name>0|00</Name>
        <Resume></Resume>
        <Etc></Etc>
      </Interviewer>
    </AuthorityManager>
    <Contributor><
      <Transcriptor>최|00</Transcriptor>
      <MovieRecorder></MovieRecorder>
      <Recorder></Recorder>
      <Etc></Etc>
    </Contributor>
    <Type>
      <OralSoundRecording>true</OralSoundRecording>
      <OralImageRecording></OralImageRecording>
      <TranscribeDocument></TranscribeDocument>
      <StillImage></StillImage>
      <Document></Document>
      <Book></Book>
      <Report></Report>
      <Etc></Etc>
    </Type>
    <Classification>
      <OralLifeHistory>true</OralLifeHistory>
      <OralTestimony></OralTestimony>
      <OralTradition></OralTradition>
    </Classification>
    <Description>
  </Authority>
</Record>

```

<그림 2> Record 영역 저작 요소 XML 표현

6) 한국학중앙연구원 주관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연구(2008)에서 본 연구자가 참여 하여 구술자와 인터뷰 하여 생성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4〉는 프로젝트 영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단위 레코드의 구술 내용이 표현되면서 저작의 집중과 관련 저작물의 연결을 웹으로 구현해 본 것인데,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동일 프로젝트 상에서 컬렉션 별로 저작을 모아 주며, 저작 내에서 세부저작 별로 선후관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저작의 집중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저작의 내용과 형태를 논리적 개념과 물리적 개념을 적용하여 구술맥락의 이해를 돕고 향후 이용과 보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결론

구술사는 문헌 역사를 통해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료로서의 가치에 중심 두어 구술 정보원(oral sources)으로 인식하는 것이 주류였다. 구술기록 자체가 구술자와 연구자의 새로운 역사쓰기라는 관점에서 구술사 기록물이 만들어 지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생산물이다. 그러나 구술사를 단순히 기록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술 기록물을 통해 그 당시의 구술자가 남긴 기록을 남긴 연원, 배경, 구술자와 연구자 간의 라포 형성 상태를 고려하여 그 문맥을 재해석하고 분석적인 입장에서 구술사를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구술사에 대한 인식과 구술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현황은 다소 미흡한데, 1990년대 중반부터 역사의 사실 규명 등의 이슈를 가지고 몇몇 기관을 중심으로 문헌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실을 밝히고자 당시의 사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언자를 중심으로 구술채록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규명 과정 후에 구술의 원 자료를 가지고 재해석하고자 하는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관리와 보존 그리고 이용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구술 아카이브 구축은 미비한 실정이다.

구술사 기록물은 다른 문헌 기록물과는 달리 기록물을 창조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구술기록을 수집 또는 생산하기 위한 의도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가 참여하여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가장 널리 생산되고 있는 방식인 기관 단위의 프로젝트 형태의 구술사 생성 과정을 근거로 생산, 관리, 보존,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를 위한 정보모델링 영역은 프로젝트 영역, 관리 영역, 레코드 영역, 관련 레코드 4개 영역으로 설정되었으며, 각 영역별 요소들을 설계 하였다. 이 모델은 구술기록물의 내용과 형식이 표현된 레코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요소를 상속하여 총괄적 개념에서 저작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련 레코드의 순차적인 논리 및 물리적 개념을 링크 하여 저작 간의 관계를 내비게이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술사를 역사 기록물로서 보존과 이용의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술사 기록물 메타데이터 양식은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포맷을 기반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다른 구술기록물 데이터와의 상호호환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모델링과 표준 요소를 기반으로 구술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토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용자 평가실험이 요구됨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권미현. 2004.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10: 112-114.
- _____. 2007.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6: 307-339.
- 박진희. 2005.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351-378.
- 윤택림, 함한희. 2006.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현실, 한성국. 2006. 기록 관리 메타데이터의 개념 모델링. 『정보관리학회지』, 23(3): 23-48.
-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 방법과 사례』. 구술자료총서 7. 서울: 선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연구 최종발표회 자료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미간행.
- Agnew, Grace, Dan Kniesner and Mary Beth Weber. 2007. "Perspectives on MPEG-7: Metadata for Multimedia Integrating MPEG-7 into the Moving Image Collections portal."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9): 1357-1363.
- Amato, Giuseppe, Donatella Castelli and Serena Pisani. 2000. "A Metadata Model for Historical Documentary Films." *LNCS* 1923: 328-331.
- Clair, Kevin. 2008. "Developing an Audiovisual Metadata Application Profile: A Case Study." *Library Collection,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32(1): 53-57.
- Clark, John. R. 2005. "Oral History Resources On the Web." *Behavioral & Social Sciences Librarian* 24(1): 109-112.
-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PBCore: Public Broadcasting Metadata Dictionary Project*. 2005. [cited 2008.10.20]. <<http://www.pbcore.org/PBCore/index.html>>.
- Dublin Core Metadata Initiative. *DCMI Element Set*. [cited 2008.9.15]. <<http://dublincore.org>>.
- Forgerty, James E. 2006. *Oral History and Archives: Documenting Context*. In Handbook of Oral History. ed by Thomas L. Charlton, Lois E. Myers, and Rebecca Sharpless. Altamira
- Gilliland-Swetland, Anne J. 2000. "Defining

- Metadata.” In *Introduction to Metadata: Pathways to Digital Information*. Murtha Baca, Ed. Los Angeles: Getty Research Institute.
- IFLA. 2001. *Collecting and Safeguarding the Oral Tradition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65th IFLA General Conference held in Bangkok, Thailand, 1999, ed. by John McIlwaine and Jean Whilffrin. Munchen: K.G Saur.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00. *ISAD (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2nd ed., Ottawa.
- Intner, Sheila S., Susan S. Lazinger, Jean Weihs. 2006. *Metadata and Its Impact on Libraries*. Westport, Conn.: Libraries Unlimited.
- Kargbo, John Abdul. 2008. “Oral Tradition and Libraries.” *Library Review*. 57(6): 442-448.
- Matters, Marion E. 1995. *Oral History Cataloging Manual*.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Ritchie, Donald. 1993. *Doing Oral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itchie, Donald. 2003. *Doing Oral History: A Practical Guide*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onghui, Zheng. 2008. “Developing Oral History in Chinese Librarie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4(1): 74-78.
- Starr, Louis. 1996. *Oral History*. In *Oral history: An Interdisciplinary Anthology*. David Dunaway and Willa K. Baum, eds. Walnut Creek: Altamira press.
- Thompson, Paul. 2000.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